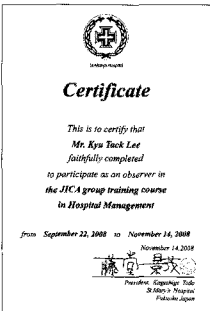


일본 연수 후...

이규백
가톨릭중앙의료원 경영지도실



일본! 설레이는 마음으로 9월 20일 후코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방문한 일본은 시골이었습니다. 성마리아병원 스키모토차장님의 안내를 받아 아담한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은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

고 20분 간격으로 요란하게 경고음을 내며 전철이 지나갑니다. 새벽 2시까지...

JICA 코스가 시작되면서 11명의 피부색이 전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하였고 성마리아병원 국제협력부의 파견직원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본의 전 국민 건강보험시스템과 건강심사평가 기능에 대하여 공부하면서부터 전반적인 의료보험시스템을 알 수 있었고, 강의가 늘어나면서 성마리아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영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 가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고 동경, 나가사키, 아소산, 도

요타규슈공장, 고베 WHO센터 등 일본 남부의 여러 곳에서 수업과 여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모평화기념관에서는 전쟁의 처참함과 일본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핵폭탄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나가사키를 재건한 일본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성마리아병원은 경영파라다임인 "Story Telling"을 Catholic Love 를 주제로 해서 전국에 가톨릭철학을 가진 병원이라는 것과 24시간 매일 근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마리아병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365일 환자를 위해 열려있고 가톨릭사랑을 근간으로 설립된 병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였지만, 최근 환자가 줄고 수익도 줄고 의사소통의 미흡과 유명한 의사의 퇴직 등 여러가지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소수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으로 인해 병원은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2달간의 일본 성마리아병원 파견근무는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가난한 유학생활동을 되새김하는 빈곤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의 미지의 경험을 선물한 짧은 기간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님, 토도 병원장님, 국제협력부 직원분들, 간호대학 교수님들과 학생여러분, JICA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스즈끼상과 11명의 참가자인 병원장님들,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신 최영식신부님과 CMC 보직자분들과 경영지도실 부장님의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